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동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거듭난 인간 · 성숙한 신자 ·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 준전임 교육목사 (전도사) 제도 도입한다

우리교회는 교육·선교·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회를 지향하고 특히 교육을 위해 1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교회로 발전해 왔다. 어린이들을 부목사나 신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담임목사 책임하에 목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 경건을 어린 시절 부터 몸에 익히는 장점이 있다.

램이나 심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기 위해 당회는 준 전임 교육목사 (전도사)제도를 도입기로 한 것이다. 각 부서를 전담할 비전과 능력을 갖춘 교역자를 청빙 하되 사택과 자동차는 본인이 준비하고 대우는 전임 교역자와 같이 하는 제도로 월·화 이틀간 자기 발전을 위해 대학원 공부를 허락하는 제도다.

준 전임교육목사가 부임하게 되면 교회학교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관심있는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각 부서를 책임진 교역자들이 지금까지 전임 사역자가 아닌고로 주중 프로그램

### 오늘 제7회 성경암송대회 부서별 예선

11월1일(금) 결선

매년 우리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천국시민으로 양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개최하고 있는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각 교육부서별로 진행된다. 금번 성경암송대회 범위로 정해진 말씀은 수많은 이단과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얼룩진 요즘에 영적인 전투에서 꼭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주옥같은 말씀으로 가득한 요한 2서, 3서, 유다서로 모든 성도가 읽고 암송하면 신앙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단 1절이라도 암송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암송대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 부서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들은 오는 11월1일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결선을 갖게 된다.

### 후반기 5, 6교구 일제 심방 계획

올 후반기 5,6교구(교구담당목사: 이용식 목사 교구장: 성준경 장로, 노송성 장로) 일제 심방계획이 확정되었다. 교구간사와 다락방장은 긴밀히 협력하여 교구식구들이 빠짐 없이 심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장기결석 가정, 새가족, 교회출석이 힘든 가정이 꼭 심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심방일정 변경 등의 연락사항은 긴급히 교구 담당목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5교구 심방계획	6교구 심방계획
10월31일(목) 5-1, 5-2	11월7일(목) 6-12
11월2일(토) 5-5, 5-6	11월23일(토) 6-1, 6-2
11월8일(금) 5-7, 5-8	11월28일(목) 6-3, 6-4
11월9일(토) 5-3, 5-4	11월29일(금) 6-5, 6-6
11월14일(목) 5-9, 5-10	11월30일(토) 6-7, 6-8
11월21일(목) 5-11, 5-12	12월5일(목) 6-9, 6-10
11월22일(금) 5-13, 5-14	12월6일(금) 6-11
	12월7일(토) 6-13

###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시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역하 6:2)

오늘 건축에 소요된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온전히 새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헌당을 갈망하는 에타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준비한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드린다.

오늘 헌금이 어려운 성도는 2년 내 분납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적금 형식도 택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바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옥박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와 새 예배당 헌당의 기쁨에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기 기도한다.

### 2003년도 봉사지원서 접수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지난 주일 주보와 함께 2003년도 봉사지원서가 배부되어 금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내년 교회 봉사 부서는 교회학교와 찬양대, 차량안내 및 식당봉사, 헌금위원, 예배위원, 음향실(멀티미디어) 등이며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이면 봉사지원이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사는 등록 세례교인으로 교사 양성반을 수료하고 교사자격증을 받은 성도는 모두 가능하다. 내년도 교회 봉사를 감당기로 준비하는 성도는 지난 주일에 배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헌금통에 넣으면 된다. 지원서가 추가로 필요한 성도는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 사명자 대회 50일 연속기도회

날 짜	교구명
10월28일	2교구
10월29일	3교구
10월30일	5교구
10월31일	4교구
11월 1일	6교구
11월 2일	7,14교구
11월 3일	주일예배

#### 금주의 성구

내가 건축하고자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 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할 따름이니이다 (대하 2:5-6)

“The temple I am going to build will be great, because our Go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But who is able to build a temple for him, since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can not contain him? Who then am I to build a temple for him, except as a place to burn sacrifices before him?” (chronicles 2:5-6)

소선지서 강해-호세아

# 계산되지 않는 회개

## (호세아 6장 1 - 11절)



이종운 목사

본문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는 두 문장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낮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때리시다가도 싸매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안다'(3절)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지식의 단계를 뛰어 넘는 것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 1.속한 회개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2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못짓을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은 이삼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래 지체되지 않고 시급하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힘써,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비인격화 하므로 우리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주와 역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보다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 2.변하는 사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4절).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신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식과 남편을 버린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참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애는 사랑과 회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희생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아침 구름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 하신 분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보고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끝없는 회개, 계산할 수 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쉬 흘려가 버리고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침 햇볕이 반짝이는 이슬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펄박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 3.숨길 수 없는 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6절).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번제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는 회생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1-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1-15).

죄를 안고서는 아무리 큰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7절).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신실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크고 작은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은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또다시 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죄를 물고 나옵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8-9절).

제사장들이 강도들과 같이 살인을 하는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하는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셨고 그들이 행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악하므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죄는 죄를 낳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 하신 분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보고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끝없는 회개, 계산할 수 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외출을 해도 조금만 지나면 새 옷에도 먼지가 묻고 때가 묻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충성하지 못한 죄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까지 합치면 우리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죄,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하 7: 16)

### 서울교회 건축에 얽힌 이야기

한국교회의 초고속 성장기라는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러 개혁 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아가 일을 하며 기쁨과 은혜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나 요즘에는 부당이 없는 교회, 즉 건축이 끝나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은 물론 재정, 봉사, 전도 등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해도 좋은 교회를 믿는 이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이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서명 김당 예배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거침없이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50일 앞두고 지난 10월 6일 사랑자 대회가 시작되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랑자로서 기도와 전도에 온 교회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려 정성과 배를 짝한 헌신으로 뚝한 사랑에 새 예배당을 헌당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게 해 달라 기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 서울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배를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인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제시경의 사명을 행하고 감동케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 1995년 9월 3일 당회와 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지금의 새 예배당을 지을 터가 강남구 대치동에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교회 건축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열의는 교회 설립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다. 창립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총합 예산의 3천여 평의 수양관 부지가 헌납되는 가하면, 이후 분당-판교 부근의 4천2백 평의 대지가 예약 부지로, 또 복지센터로 사용해 달라며 강동구 올림픽 아파트에서 남남시 방향으로 약 10분 주행 거리에 있는 4천여 평의 부지가 헌납되었고 이외에도 경북 김천시 인근 일대를 비롯한 경기도 김포지역의 대지, 경기도 양평의 대지와 같이 헌납되는 등 성도들의 자발적인 부지 헌납이 줄을 이어 예배당 건축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95년 11월 5일 I, II, III 부 예배시간에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평당 1200만원으로 알려진 대지 구획비 100억 원을 목표로 한 가정 당 한 평 사기 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를 위해 당회원들은 건축헌금 작정을 앞두고 11월 3일 심야기도회를 마친 후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들어가 철야기도회를 가졌으며, 4일 하루를 일일 금식일로 정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달라는 탄원을 드리면서 하루를 보냈다.

기도로 준비된 95년 건축헌금은 헌금과 작정헌금,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6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바친 헌금봉투를 보여 성도들의 눈물과 고백을 보는 듯 했다"고 헌금계수를 맡은 집사들이 소감을 밝혔듯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바치지 못할 형편에 있는가 하면, 모두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바친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당 건축에도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건축허가가 민원을 이유로 지체되어 교회 건축 부지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대지를 구입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주민의 반대와 행정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지연되던 예배당 건축에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100억이나 되는 대지 대금을 2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담에 건축까지 시작했다면 힘들 것을 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후일 깨닫게 되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은 물질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술로가 아니라 기도로, 말로가 아니라 착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이중운 목사의 당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우리에게 마침내 97년 10월 6일 그토록 기도하고 애태우던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1991년 10월 6일 논현동 예배당에서 169명의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6년만의 일이었다.

98년 10월 10일 '일 시작 감사예배' 후 당회원들이 첫 삽을 뜨면서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 예배당 건축이 99년 11월 15일 시공회사인 상상 종합건설이

재정난으로 도산함으로써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

또 한번 새 예배당 건축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만에 빠져 자랑했고 무엇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온 교회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며 건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이중운 목사는 교회가 새벽마다 한마음으로 간구 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벽기도 강단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99년 12월 6일 예배당 건축을 우리교회가 자영하기로 하고 시공자 변경 신고를 했다. 이는 당시 IMF상황에서 건축회사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건축이 완공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그 해 초에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개정 건축법에 의해 건축을 한 것은 당시 강남구청 관내에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그 법은 우리가 신청허가를 받고 그 해 연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건축이 막바지에 이른 2000년 9월 당회는 재산의 실질 조를 드리는 건축헌금을 작성하는 등 온 성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도와 물질로 또 직접 몸으로 봉사하였다. 또한 입당 1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부서별로 현장에 나와 새벽기도회와 작업장 헌신을 했고 입당 2개월 전부터는 밤 경비대를 조직하여 교구별로 예배당 건축현장을 지키면서 기도하였으며 1개월 전부터는 매일 밤 온 성도들이 총동원되어 청소 및 정리작업을 하였다. 이 같이 새 예배당을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세우 우리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현당을 하고자 한다.

건축과정에서 몇 번의 위기를 맞아 극복해 오는 동안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없다는 우리 성도들의 체험적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우리는 현당을 위해서도 기도가 최우선이 되고 온 성도들의 정성과 배를 짝한 헌신으로 현당 이후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기대감과 비전으로 우리 모두 총망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리 : 김시환 (편집부))

#### 이인영(고등부)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어려운 일이 많아 하나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께 너무 많이 미안한 마음 솔가져고 있었는데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계신 것을 보고 많이 힘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30일 동안 마지막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본 우리 고등부 식구들 다들 와서 반가워 해주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후배들의 사랑과 헌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30일간 저를 체척질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나 학업에서나 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저를 일궈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만 생활한 저에게 이제에는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저 꼭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갈게요!

우리 고3들 다들 힘내고!! 그럼 다들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시생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 김필구(고등부)

3월 24일, 첫 번째 고3 기도 결연회가 6층 고등부실에서 열렸을 때 고3이라는 타이틀이 언제까지나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우리.. 새 학년 새 학기 시작과 맞물려서 '입시생을 위한 기도 결연회'를 갖고 나니 그제야 어느 정도 실감이 되었다.

어느덧 반년이 흘러 10월 6일, 2차 고3 기도 결연회가 열렸다. 첫 번째 결연회보다 더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6개월이 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테고 또 체험하셨을 테니.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이 기회에 기도해주신 어르신들과 선배, 후배에게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미숙하다.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 그럴 때에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최선을 다하도록 말이다. 하나님은 분명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물론,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니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어렵게든 쉽게든—당신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 진선 여중 신우회 모임을 갖고

##### 서춘식 집사(중등부 부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윤영국 목사님의 지도아래 신우회를 조직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이슬처럼 조용조용한 눈망울과 교복차림의 구김살 없는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사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선 여중은 불교 재단에서 설립하여 학교 안에서 경건회와 교제의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되돌아 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어진 공간에서 짜장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됨을 다시 확인하며 가슴 뭉클한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목사님, 선생님, 새친구 5명 등 모두 18명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신앙적인 만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새겨지며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 목적들이 하나둘씩 영글어 가는 것을 볼 때 이 귀한 일을 이제야 시작하고 있구나 회개하며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신우회를 중심으로 조직도 재편되고 소외되는 친구 하나 없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영성훈련의 장, 복음 전파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 교회가 중등부 신우회를 위한 기도와 협력으로 사랑의 교제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날로 성장되어 가는 참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22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대신 후보 초청 강연

신앙과 애국 - 이회창 후보편



지난 10월14일 제22학기 목회자세미나에서 이회창 대선후보를 초청,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리 요약한 내용이다.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미스바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나라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지키고, 사회 차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 부패가 꼬리를 물면서 정직한 사람들은 허탈감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거짓을 심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 했을 때 애굽은 당시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탄압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끈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치고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와 깨끗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국민대통합, 국민대화합의 시대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민족, 같은 형제가 서로 대립하는 비극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통한 공고한 평화 정착입니다. 북한은 군사 우선 노선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지원도 국민의 합의하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모든 한국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자본주의와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통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빠른 통일" 못지 않게 "바른 통일"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데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가지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통일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울며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나라를 구하고, 통일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왕은 굶은 배운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과 각계 지도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 1 - 이 후보님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님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십니까?

응답 - 저는 카톨릭 신자로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솔직히 교회나 성당에 나가서 기도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짧으나 매일 "이 나라를 위해서 제 한 몸을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주십시오. 만일 제가 지도자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달길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질의 2 - 우리 정부는 건국 초부터 70년대까지 미신타파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문문화 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 행위를 조장하는 신문과 방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 - 미신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회를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신은 분명히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며 전통문화는 다만 문화에 불과한 것으로 종교의 차원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 이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연맹, 한국교회강신연구원의 공적 질문입니다. 만일 이 후보께서 대통령에 되신다면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시겠습니까?

응답 - 장애인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지도자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가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없애는 사회의식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고용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지금 보다 더욱 실질적인 보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4 - 이 후보는 97년도 극동방송의 대표로서 경제문제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으로 근검절약성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로서 민족 전체가 금주운동이나 금연운동에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응답 - 사회의 변화는 정신개혁운동이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소위 도덕재무장운동이 일어남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운동은 위로부터가 아닌 교회나 혹은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번 월

드컵 경기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자원의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도자로서 도덕 문제나, 새로운 국가 질서를 이루는 일에 국민 스스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질의 5 - 직급 초등학교 교정에 단군상을 세우고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는 사회단체를 허용한 정부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독을 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 단군상을 종교적인 목적이거나 일률적인 신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우는 것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의 6 - 교회는 기독교적 신앙 자원을 떠나서라도 생산성 저하, 향락문과 고조 등을 이유로 주 5일 근무제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응답 - 본인은 주 5일 근무제를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나 직장 단위, 혹은 사업 단위로 합의를 이루어 국민이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이 계도가 향락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 7 -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 정부에 체포되거나 북한에 끌려간 목사가 여러분 계신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교계에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응답 - 탈북자는 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강제송환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 중국의 강행민 주석을 만났을 때 강제송환 되는 탈북자가 없도록 하며 그들에게 인권적인 대우를 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나 이들을 돕다가 자유를 빼앗긴 목사님들을 위해 마땅히 소리를 높이고 이들의 인권자유를 위한 일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8 - 만일 이 후보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교회와 기독교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응답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나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께서 신앙과 양심대로 사역하실 수 있고 종교의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나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허숙 사진-정동호 (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주) 은현교회 헌당식에서 설교한다. 31일(목) 대치동 지역 교계지도자들을 초청,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다진다.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는 19일~27일 2002 부산 세계합창 올림피아드에 조직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 공광 이찬: 이석빈·최예순 집사 (1교구)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31-28 거영산업 군포 공장

- 금주의 식사제공: 방계은 권사 가정
○ 목회자 세미나 식사제공: 전수자 권사 가정
○ 목회자 세미나 간식제공: 김종자 권사 가정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림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시간, and content. Rows include weekly services (I, II, III parts), church services, and prayer meetings.

교회약도:

